

STARCRRAFT®

LEGACY OF THE VOID™



BILZARD
ENTERTAINMENT

BLIZZARD ENTERTAINMENT

6번 구역

믹키 닐슨

비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았다.

실력이 있는 역전 용사라면, 화염방사병의 팔에 장착된 플라즈마 공급관에 뜨거운 못을 정확한 각도로 찔러 넣으면 전투복 속의 불쌍한 병사가 지옥 화염방사기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순간 통구이가 돼 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양팔을 휘저으며 베타 사울의 더러운 ‘땅’ 위를 뛰어다니는 한심한 녀석이 바로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제어 장치가 갑주를 똑바로 세우느라 분투하는 사이에도 우스꽝스러운 주황색 전투복의 외부 스피커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도리안 사령관이 꼬챙이에 꿰인 스케일릿처럼 소리를 질러 대는 해적 녀석의 목소리를 듣는 게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드디어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울음소리가 멈추고 전투복이 그 안의 병사를 세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었다. 갑주가 앞으로 기울더니 완두콩 죽 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베타 사울의 지표에서 외기권에 이르기까지 ‘공기’란 각종 독성 기체가 뒤섞인 채 응축된 것으로, 지면 위 1미터 높이까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예의 지면은 걸쭉한 진창으로, 드문드문

종유석처럼 생긴 기묘한 돌기가 솟아 있었다. 높이가 고작 이 미터인 것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사람 키의 두 배인 것도 있었다.

이제 그 화염방사병에게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전투복 등에서 튀어나온 연료 통뿐이었다. 주위의 수렁에는 시체 세 구가 더 널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가시 징이 잔뜩 박힌 갑주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구식이라 도리안이 걸친 연방 해병대 전투복이 신규 지급품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나머지 둘은 소름 끼치는 농담을 할 때나 ‘갑옷’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보호구를 덕지덕지 꿰어 입고 있었다. 이 자살 부대를 떨군 수송선은 담즙처럼 일렁거리는 하늘 너머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철수합니까?” 스파네티의 목소리가 외장 스피커를 통해 물었다. 도리안은 진창 속에서 군화발을 돌려, 보호 유리를 통해 부하 군인을 흘깃 바라보았다. 짐승 분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그와 스파네티 둘뿐이었다. 스파네티는 오른쪽 팔 보호구의 위쪽에 타격을 입었지만, 의무관 지머만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는 아닐 것이다. 도리안의 전투복도 그 원숭이 같은 자식이 비아냥거리며 불을 붙였을 때 그슬리긴 했지만... 결국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 것은 도리안이었다. 고기는 파삭파삭한 게 맛있다고 했던가.

“그래, 그러—”

베킨스 하사의 지직거리는 목소리가 분대의 암호화 주파수에 끼어들었다. “사령관님, 베크입니다. 수송선은 미끼였습니다. 놈들이 그 물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그녀치고는) 적당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도리안은 하사를 ‘요지부동’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자기가 아무리 동요시키려고 해도 하사가 늘 거절했다면서, 스파네티도 동의했다.

“가!” 도리안이 스파네티에게 소리쳤다. 두 남자가 젤나가 사원 방향으로 끈적끈적한 구렁텅이를 헤치며 걷기 시작하자 제어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원은 악취가 나는 안개 사이로 피라미드처럼 솟아 있는 구조물이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도리안의 귀에 부딪혔다. “짐승 분대, 사령부다. 현황 보고 바란다. 이상.”

늘 그렇듯이 사령부는 쓸모없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냥 그걸 하는 시간보다 더 길 것이었다.

“현황 보고는 제가 바쁘다는 것뿐입니다. 그보다는 그쪽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 주는 게 어떻습니까?”

콧소리가 들렸다. “도착 예정 시간은 10분 후다. 이상.” 통신 장교는 짜증이 난 모양이었다.

연방 해병대 갑주의 힘을 빌렸는데도 도리안과 스파네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는 1분이 고스란히 걸렸다. 둘이서, 그것도 단둘이서 그곳에 나오는 건 도박이었지만, 도리안은 주사위를 믿었다. 매사를 교범대로 하는 건 초짜에게나 어울린다. 교범을 쓴 소위 ‘전문가’는 AGR-14 돌격 소총의 총구를 들여다본 적도 없는 게 틀림없었다.

때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도리안은 적 접촉 보고를 듣는 순간 양동 작전을 의심했었다. 아니면 왜 그 수송선이 스파네티의 초소 바로 위로 지나갔겠는가? 조종사는 일부러 눈에 띄어서 해적단의 목표물인 유물로부터 방어 병력을 분산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게 다 유물 때문이다.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도 있는 사람도,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물건 때문이다.

이 유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진짜 진짜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 그게 도리안이 아는 전부였다. 회사는 작전을 수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면 알리지 않았다. ‘고위 경영진’, 일명 뫼비우스 재단은 멸종한 지 오래인 외계 문명 연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짐승 분대도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 이들의 상관은 원래 아크튜러스 멧스크였고, 분대는 100% 자치령 해병대였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악수 몇 번과 회의 몇 번이 있는 후, 짐승 분대는 뫼비우스 재단의 군사 부서인 뫼비우스 군단으로 이동해야 했다.

자연히 공격 명령은 뫼비우스 재단이 내렸다. 경찰대가 젤나가라는 고대 종족이 건설한 이 외계 사원을 발견했을 때, 재단은 짐승 분대를 파견해 사원 안의 유물을 찾아서 확보하라고 했다. 간단한 임무였다. 경찰대는 행성에 거주민이 없고 사원이 버려진 상태라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수단’(해적단들은 용케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을 선택한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도리안과 스파네티가 남쪽 입구로 접근하자 외계 건물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총성에 이어 소음이 울리더니, 이빨을 뒤흔드는 폭음이 세 번 이어졌다. 도리안의 짐작이 맞다면 포 소리는 부대의 불곰, 특기병 크랜스턴의 작품일 것이다. 중무장한 포병으로, 스트립 바에서 크레딧을 펄펄 쓰는 휴가 장병처럼 응징자 유탄을 퍼붓는 게 특기였다.

사원 둘레를 돌면서, 도리안은 짐승 분대의 수송선이 마지막으로 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수송선은 사원 입구에서 몇 미터 거리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고물 그리즐리가 한 대 있었다. 도리안은 ‘선수단’이 아주 바보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뫼비우스 수송선의

맞은편에 그리즐리를 세우고 선체 탑재 무기로 공격하는 한편으로, 짐승 분대의 수송선 뒤편에서 제압 사격을 하며 도리안의 부하들을 사원 입구에 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제우스'의 고전적인 전법이였다. (제 잘난 맛에 사는 해적단 대장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였다.) 짐승 스쿼드와 제우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불행히도 해적단은 매번 도주에 성공했고... 그 와중에 수많은 선수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 그런데도 제우스는 어찌어찌 사람을 구워삶아 머릿수를 다시 채워 넣었다.

이번에는 해적단이 도리안의 병력 대부분을 유인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어떤 분대장이 적이가득 탑승한 수송선과 교전을 하는데 병사를 둘만 보내겠는가?

도리안은 보호 유리 뒤에서 미소를 지었다. 어떤 분대장이냐고? 한 걸음 앞선 분대장이지.

그리고 지금은 몇 걸음 뒤에 있었다... 뫼비우스 수송선 뒤에 숨은 적에게서 몇 걸음 뒤에.

도리안의 수신호에 스파네티가 멈춰 섰다. 두 남자는 무기를 들고 해적단에게 발포하여, 수송선 근처에 뭉쳐 있던 한심스러운 개새끼 세 놈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 와중에 뫼비우스 함선의 외피와 램프 장착부에도 구멍을 좀 내긴 했다.

도리안, 스파네티, 베킨스, 크랜스턴은 모두 그리즐리에 포화를 퍼부었다. 심지어 분대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몸을 사리는 하퍼 일병마저 엄폐물 뒤에서 사격을 하고 있었다. 그리즐리의 장갑은 오래 버티지 못할 테고, 조종사도 그걸 잘 알았다. 엔진이 작동하면서 일어난 돌풍이 도리안을 뒤흔들더니, 허공에 소용돌이 모양의 녹색 붓 자국을 남겼다. 도리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송선은 이륙하여 공중을 선회하더니 유령처럼 짙은 안개 속으로 날아갔다.

스파네티는 나머지 부대원들을 보러 갔다. 지머만은 필요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해 먼저 가 있었다.

“사령부, 파티는 끝났다.” 도리안이 암호화 주파수를 활성화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분대의 수송선으로 걸어가 그곳에 있는 두 구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래도—”

두 구?

셋이어야 할 터인데. 연방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살아남은 모양이다.

열린 주파수에서 허스키한 바리톤 목소리가 대뜸 말했다. “날 맞혔어, 사령관. 하지만 내가 그 정도로 죽진 않지. 사실 너랑 네 밑의 장난감 병정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교범을 따르지 않았지? 충성스러운 자치령의 로봇들과는 달라... 다음엔 기억하지.”

제우스의 목소리였다. 연방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있던 게 녀석이었다. 도리안이 끝장을 내 버릴 수도 있었다. 그 비열한 해적 놈이 바로 손안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아나고 있다. 또.

지옥 갈구면. 배치를 고려하면, 제우스가 발각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을 방향은 하나뿐이었다.

“사령부, 분대장입니다. 주요 용의자 제우스를 추격합니다. 반복합니다—”

“불허한다, 분대장. 물건이 안전하다면 회수가 최우선이다. 이상.”

도리안은 “뭐라고요? 소리가 끊깁니다!”라며 고전적인 수작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처음 몇 번 후에는 상관들이 눈치를 챘다. 이번에는 굳이 수작을 부릴 것도 없이 그냥 응답하지 않았다.

스파네티가 수신호로 지원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사령관은 손을 저어 그를 물리쳤다. *전원*이 명령 불복종으로 질책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피라미드의 모서리를 돌면서, 도리안은 제우스의 실루엣이 무기를 든 채 탁 트인 바닥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제우스가 발포했다. 도리안도 발포했다. 대못이 공중을 가르더니 사령관의 왼쪽으로 스킨다시피 지나갔다. 도리안의 탄환이 해적 갑주의 왼쪽 팔, 어깨, 헬멧에 문신을 새기려는가 싶더니, 거대한 형체가 구린내가 나는 구름 기둥을 흠뻑리며 내려앉았다. 다음 순간에는 그리즐리가 도리안의 탄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제우스는 그의 시야 밖에서 함선에 올라타고 있는 게 분명했다.

도리안은 계속 탄환을 퍼부었지만, 함선이 위로 솟구쳐 공중으로 사라지는 동안 대못은 그 덩치 큰 괴물의 장갑에 튕겨 나올 뿐이었다.

몇 시간 후 도리안 사령관은 행성 왕복선의 관측 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체매만 한 것, 전투순양함만 한 것, 수많은 소행성들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몇 번은 아슬아슬할 만큼 가까이 스쳐 지나갔다.

왕복선의 기내 컴퓨터에는 '레반스카'라는 이 소행성대를 탐험하는 항로가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1미터의 오류만 발생해도 무결성 손실이 일어날 수 있었다. 말이 좋아 무결성 손실이지, 우주 공간을 가르느 바위를 맞아 우주선이 산산조각 나고 짐승 분대를 비롯한 탑승자가 모두 레반 행성의 잔해로 이루어진 소행성대로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뜻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도저히 그 심상을 머리에서 떨칠 수가 없었다. 도리안과 팀원들이 파편 사이를 동실동실 떠 있는 심상을. 공허 속에서의 기대 수명은 약 90초이고, 거의 초속 2,500킬로미터로 눈앞을 날아다니는 바위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마저도 줄어들 것이다. 그 소중한 화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손에 넣은 그 석판은 얼마나 갈까? 아마 팀원 누구보다도 오래가겠지. 지금까지도 멀쩡했던 물건이니까. 어쩌면 이 차갑고 고요한 진공 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조종사가 안내 방송으로 곧 뫼비우스 재단 시설에 도착한다고 알렸다. 창밖을 열린 살피니 뫼비우스 군단의 활동 기지 역할을 하는 거대 암석에 접근하고 있었다. 더 다가가자, 바윗덩어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앉은 시설의 전경이 사령관의 눈에 들어왔다. 기지는, 마치 짝 펼친 거인의 손가락처럼 중앙부로부터 뻗어 나온 납작한 신소재 강철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주선은 도열한 포탑을 지나 우주공항으로 진로를 잡고 착륙을 준비했다. 도리안에게는 그 절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빨리 화물을 치워 버리고 블랙스톤 소령에게 다음 임무를 받고 싶었다. 그게 뭐든지.

“블랙스톤은 잊게.” 스파크스 중령이 내뱉듯 말했다. 도리안은 스파크스가 뭐든지 내뱉듯이 말한다는 걸 알아가는 중이었다. 지금까지 상관으로 모신 사령관이 모두 그랬지만. “이제 내게 보고하게.”

도리안은 이 남자가 벌써부터 싫었다. 왜 윗대거리들은 항상 우월성을 과시할 때 생색과 무례에 의존하는 걸까.

“그래, 소령이 공치사를 하더군. 자네 실적을 떠벌리면서 말이야. 내 생각을 말해 줄까? 사실 소령은 골칫거리인 자네를 얼른 떠넘기고 싶었던 거야. 아크튜러스가 폭삭 망하기 전에 자네를 뫼비우스에 떠넘긴 이유도 똑같아. 짐작을 버리고 싶었던 거지! 뭐, 성공률로 따지자면 자네는 슈퍼스타 맞아. 하지만 징계 이력으로 따지자면 쓸모없는 식충이야.”

중령의 책상에는 집무실의 나머지 공간과 마찬가지로 티끌 하나 없었다. 도리안은 스파크스의 벽에 걸린 훈장을 손가락으로 훑어도 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을 거라는 데 돈이라도 걸 수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단 두 개의 물품은 홀로프로젝터와 얇고 가느다란 리모컨뿐이었고, 그것마저도 딱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자, 그래서 어찌자는 거냐?” 도리안이 열중쉬어 자세로 책상 앞에 서 있는 동안, 늙은이는 책상 뒤를 짐짓 점잖게 오락가락하며 말을 이었다. “이제 자네는 내 골칫거리라네. 난 골칫거리가 싫어, 사령관!”

길쭉한 리모콘은 끝이 뾰족해서 무기로도 쓸 만하겠다고 도리안은 생각했다. 길이도 적당해서 중령의 눈 안쪽 구석에 밀어 넣으면 두뇌에 닿을 것만 같았다.

도리안은 스파크스가 바닥에 쓰러져 눈에 박힌 리모콘을 부여잡고 경련하며, 티끌 하나 없는 벽에 온통 피와 침을 흘뿌리는 광경을 상상했다.

“답은?” 스파크스가 짚었다.

“예?” 도리안이 대답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쓰레기장 개새끼의 목소리를 완전히 소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끔 사람을 죽이는 공상을 하지만, 보통 이 정도로 자세히 하지는 않았다.

“내가 다른 불쌍한 자식한테 자네의 쓸모없는 몸뚱이를 넘겨 버리지 않는 이유를 알겠느냐고 물었네. 당연히 모르겠지. 무식한 친구, 답은 나한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자네가 슈퍼스타 팀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될지 맞출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스파크스는 걸음을 멈추더니, 한쪽 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과 주걱턱을 도리안에게 들이댔다.

“경비 임무를 하게. 이 기지의 6번 구역, 첨단 연구 부서에서.”

경비라고? 진담인가? 우리더러 실험실의 샌님들 똥이나 치우라고? 그 녀석들의 연구 자료를 보호하라고? 대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저 소행성 장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설레지 않나, 중위? 행복하지 않아? 물론 자네 기분 따위, 내가 알 바 아니지! 블랙스톤이 새로운 일급 기밀 임무를 맡고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다는 데 자네 목숨을 걸겠네.”

도리안은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게 웬 똥 같은 소립니까?” 스파네티는 양손을 휘젓고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냈다. “우린 그 따위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스파네티가 팔을 휘저을 수 있는 건 천만다행이었다. 지머만이 팔의 부상을 제대로 고쳐 놓은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그동안 팀에서 훨씬 심한 부상도 치료한 바 있었다.

하퍼 일병이 양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몸을 숙였다.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게, 뭔가 있어요.” 도리안은 별일 아닌 걸로 법석을 떤다고 하퍼를 꾸짖곤 했다. “나쁜 징조입니다.” 하퍼가 말을 이었다. “이러다 우리 모두 군단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하퍼는 도리안에게 예리한 눈길을 던졌다. 이 아이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사령관님이 그 해적, 제우스를 추격했기 때문입니까?”

지머만이 당차게 말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기대 서서 도리안을 못마땅하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도리안이... 사령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었다. 자치령 시절부터 늘 그랬다. 고통스러운 죄책감이 사령관의 가슴을 비틀었다. 이미 어마어마한 두통으로 지끈거리던 그의 머리가 한층 더 크게 울렸다.

“브랙스턴이 내게 양심을 품고 있었던 건 비밀도 아니지.” 도리안이 대답했다. “거의 처음부터 말이야. 그래, 이건 일종의 보복일지도 몰라. 어쨌든 한 가지만은 확실해. 자네들은...” 도리안은 손가락을 들어 흔들어 보였다. “최고라는 거.”

그는 작은 휴게실의 탁자에 앉은 부하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응시했다. 지머만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스파네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하퍼는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세뇌, 즉 ‘신경적 재사회화’를 당한 크랜스턴은 눈을 크게 뜨고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띤 채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리고 베킨스는—베킨스는 베킨스였다. 언제나처럼 속을 알 수 없는 그녀는 한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어서, 도리안은 그녀도 두통을 달라고 있는 걸까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맨 팔과 윗가슴에는 아주 약간 광택이 흘렀다. 도리안과 나머지 분대원들은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도 방은 왠지 덥게 느껴졌다. 도리안은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머만.” 도리안이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이번 임무에서 6번 구역 내부 의료진을 보조할 것. 나머지 인원은 이야기했다시피 경비를 선다. 이때만 넘기자. 스파크스가 실컷 흥을 내고 나면 우리도 제대로 일하면서 악당을 잡을 테니까.”

그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 같았다. 스파네티가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은 우리를 브락시스의 불길에서 구하고... 코랄, 고비 정거장, 판테라 프라임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제길, 여태 사령관님을 못 믿는다면 그냥 짐 싸는 게 낫죠.”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마지막이었지만, 지머만까지.

도리안은 미소를 지었다. 사령부가 뭐라고 생각하든 부하들이 자기를 믿어 준다는 건 늘 고마운 일이었다. “듣고 싶던 말이군, 짐승 분대.”

두통이 과열 상태에 돌입하여 사령관은 회의를 끝냈다.

처음 48시간은 지루했다. 도리안은 스파크스에게 임무 수행 기간에 대해 확답을 받아 내느라 고생했다. 사령관은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육 개월 근무를 바랐지만, 퇴비우스 군단에서는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두통과 열은 지속적이었으나, 이를 동반하는 독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안은 그냥 잔병쯤으로 치부했다. 나머지 분대원들도 같은 증상을 보였지만,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므로 별일 아니었다.

가장 기묘한 것은, 간밤에 그의 잠을 깨운 그 소리였다. 그가 난생처음 듣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의 생각이 미치는 한 가장 가까운 소리는, 환자의 생명 징후가 수평선을 그릴 때 의료 기기에서 나는 삐이 소리였다. 그 소리는 도리안을 깨우더니 몇 초 후에 멈추었다.

방에는 물론, 문밖을 보았을 때 장교 막사의 복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고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6번 구역의 4번 문 앞에서 있자니 그다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떨칠 수가 없었고, 잠에서 깬 후에도 잠시 동안 소리가 났다고 맹세할 수도 있었다.

도리안은 구역에서 에어컨을 푹푹 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전술 장비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장갑은 최소한이었지만, 연방 해병대 전투복을 입었더라면 적어도 전투복의 온도 조절 장치를 쓸 수는 있을 것이었다. 헬멧의 보호 유리를 통해 시간을 힐끗거리면서, 도리안은 나머지 두 시간을 어떻게 참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비명이 들려왔다.

그 고향은 꿈속의 그 곡소리(그게 정말 곡소리였다면)와는 달랐다. 이 소리는 아주 인간적인 것으로, 곧 죽을 사람이나 본인이 곧 죽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마음을 후벼 파는 비명이었다. 도리안은 이런 비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은 보통 총성으로 끝을 맺었다.

탕! 탕!

역시 총성이다.

도리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여 스캐너에 출입증을 댔다. 문이 쉬익 열리자, 그는 돌격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댄 채 좌우를 살피며 뛰어 들어갔다. 그는 즉시 출입구를 확보하고 계속 이동했다.

연구원 하나가 복도 저쪽의 방에서 입을 벌리고 공포로 눈이 휘둥그레진 채 뛰어 나와서는, 패널이 깔린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다시피 하며 겨우 옆으로 지나갔다.

여자가 나온 방에서 비명이 또 들려왔다. 또 한 발의 총성. 그리고 침묵.

도리안은 모퉁이를 확보했다. 흰색 실험실 가운을 걸친 회색 머리카락의 남자가 작업대 근처에 서서,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금속 바닥 위로 피와 함께 마지막 숨결을 흘리고 있는 다른 연구원이었다. 남자는 도리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형 무기를 들고 입을 다문 채 표정 없이 희생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령관은 계속 전진했다. 연구원이 이쪽을 돌아보고 무기를 들면, 가슴에 한 번 머리에 한 번, 두 차례 탄환을 퍼부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 도리안이 다가가는 동안 남자가

위를 보기는 했지만, 그 순간 뭔가가 남자의 눈을 스쳤다. 일종의...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다음 남자는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그분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도리안은 대답 대신 소총 개머리판으로 미친놈의 턱을 가격했다. 노인이 무기를 떨어뜨리고
작업대로 비틀비틀 쓰러지자 비상 경보가 울렸다. 노인의 몸뚱이는 쓰러지면서 장비를 바닥에
흩뜨리고는 축 늘어져서 더 움직이지 않았다.

“총은 실험 단계의 플라즈마 소총이었네.” 스파크스가 말했다. 그는 책상 뒤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대고 있었다. “기지의 다른 구역에서 흠뻑다는군.”

도리안은 얼굴을 찌푸린 채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걸 6번 구역에 반입해서
사람들을 쏘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요. 이유가 궁금하군요.” 도리안은 그날 일찍 두통약을
먹었지만 편두통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지렁이다. 마치 지렁이가 뇌를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지금껏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괴로웠다. 짐무실이 이렇게 덥지만 앉았어도 조금은 나았을
텐데.

“글쎄, 그건 수사관의 일 아닌가?” 중령이 반박했다. “자네는 수사관이 아니야.” 스파크스는 책상에
몸을 기대더니 그 가구가 자기 소유라고 선언이라도 하듯 양손을 넓게 벌려 짚었다. “자네는
경비야. 근무 중에 두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경비원이지.”

“저희 팀 일부가 구역 내부에서 경비를 설 수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리안이 대답했다.

“너희는 우리가 서라는 데 선다.” 스파크스가 받아쳤다.

“그 노인이 맛이 가 버린 건... 연구 중인 프로젝트 때문이었을까요?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까?”

스파크스는 그 시간 이후로 6번 구역의 모든 장교가 무기를 휴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만’ 어찌고 저찌고 하며 보안 등급과 절차에 대해 뻔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건 사실이였다. 6번 구역은 기밀 그 이상이였다. 시설 저 안쪽에서 무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외계 생물학 분야의 실험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중령이 헛소리를 지껄이는 동안, 도리안의 머릿속에 느닷없이 하나의 심상이 떠올랐다. 지금과 똑같은 자세를 취한, 그러나 피부가 없는 스파크스의 모습이였다. 도리안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옷이나 털도 없고, 근육과 힘줄, 핏줄만이 움직일 뿐이였다... 스파크스가 책상에서 손을 거두자, 도리안의 머릿속에서는 나무 위에 피투성이 손자국이 두 개 남았다.

도리안은 눈을 감고 셋을 세었다. 눈을 뜨자, 스파크스는 마치 자기가 방금 게워 낸 음식 덩어리라도 보는 듯이 도리안을 향해 얼굴을 한껏 구기고 있었다.

“의무관을 보는 게 좋겠군.” 중령이 용케도 비난조로 말했다. “꼴이 아주 형편없어.”

도리안이 방에 들어와서 쉬려고 할 때, 부관의 홀로그래피 로봇 머리가 책상 위에 나타나더니 베킨스 하사가 자기 숙소에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병영에 있는 베킨스의 방은 얼음 동굴이었다. 도리안은 자기 숙소의 온도 설정을 떠올렸다. 그 온도와 진통제가 그나마 활동이 가능할 만큼 두통을 완화하여 주었던 것이다. 문을 연 베킨스는 공기가 그렇게 싸늘한데도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침대에 앉았다. 도리안은 그 맞은편의 작은 의자에 앉았다.

“뭔가 이상해요.” 베킨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왼쪽 팔을 굽었다. “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꾸 결눈으로 뭐가 보여요.” 베킨스는 그를 바라보았고, 도리안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목구비에 감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확실했다.

그것은 공포였다.

“피부가 근질근질하고 환청도 들려요. 벽 뒤에서 들리는 소리, 굽는 소리. 가끔은... 비명도요. 길고 늘어지는 비명인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자면 더 심하거든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꿈속에서... 하는 일이 말이에요.”

도리안은 대답을 잠시 미루었다. 베킨스가 속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베킨스가 말을 이었다. “나머지 분대원들도 증상이 같은데 저만큼 심하진 않아요. 크랜스턴은 모르겠지만요... 뇌엽 절제술 때문에 알 수가 있어야죠. 녀석들이 크랜스턴의 뇌를 대체 몇 번이나 튀긴 거죠?”

도리안은 어깨를 으쓱했다. 크랜스톤의 첫 번째 신경적 재사회화가 실패해서 시술을 다시 해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풍문에 따르면 크랜스톤은 시술을 여러 번 받은 끝에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팀의 누구도, 도리안조차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사령관이 아는 것이라곤 크랜스톤이 유능한 군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베킨스가 계속 말했다. “증상은 모두 우리가 베타 사울에서 그 물건을 확보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그걸 찾아서 우주선까지 날랐죠... 오싹 소름이 돋더군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의료진의 진찰은 받았나?” 도리안이 물었다.

베킨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사령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요. 심리 치료를 받고 싶진 않다고요.”

“그렇군.” 도리안이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나도 최근에... 조금 불편해. 자네가 신체적인 증상이라도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군. 나머지 분대원과 함께 말이야. 글썸, 전투복을 통해서 뭔가... 감염됐는지도 모르지. 거기 있을 땐지 여기로 오는 길인지 몰라도 말이야. 의무관들이 다 해—”

사령관 옆의 탁자에서 뽁 소리가 났다. 홀로프로젝터가 부관의 머리를 띄웠다. “베킨스 하사님, 하퍼 일병의 전화입니다.” 부관이 말했다.

“받아.” 베킨스가 대답했다.

프로젝터 본체에서 하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사님, 하퍼입니다. 스파네티 보셨습니까?”

“경비 근무 중일 텐데.” 베킨스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눈으로 도리안에게 질문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

“맞습니다. 제가 교대자였거든요.” 하퍼가 말했다. “그런데 교대하러 갔더니 거기 없더군요. 근무 위치를 이탈하다니, 스파네티답지 않잖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하퍼는 늘 걱정투성이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하퍼의 걱정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도리안은 불안했다.

도리안이 도착했을 때, 하퍼는 스파네티와의 교대 장소인 저장실 B 앞을 초조하게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저장실 B는 베타 서울에서 가져온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했다.

“찾으셨습니까?” 꼬마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물었다.

도리안은 멈춰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자 일시적으로 최면이라도 걸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아니.”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 고민할 겨를도 없이, 문에 다가가 소매에 달린 출입증을 판독기에 댔다.

“거기— 거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하퍼가 말했다.

“나도 알아.” 도리안이 대답하자 문이 스스럼없이 열렸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뒤에서 스르륵 닫혔다. 중간 크기의 방은 위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온통 하얗다. 공간의 한가운데는 받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유물이 떠 있었다. 생김새는 매우 단순했다. 네모 모양의 까만 석판으로, 키는 도리안의 반만 했고 가장자리는 가운데 부분이 어딘가... 불편해 보일 만큼만 안쪽으로 휘어 있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다. 그리고 스파네티가 그로부터 1미터 정도 거리에 서서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도리안의 존재를 눈치챈 기척은 없었다. 스파네티는 고개를 기울이고 양팔을 옆구리에 축 늘어뜨린 채 꼼짝 않고 서서, 일종의 깊은 최면에 빠지기라도 한 듯이 멍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도리안은 나사가 풀린 듯한 그의 표정과 자세를 보고, 으스스하게도 희생자를 내려다보며 서 있던 미치광이 연구원을 떠올렸다.

“스파네티.” 도리안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스파네티!” 더 크게 부르자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다.

군인은 눈을 꿈쩍이고 고개를 들더니 이쪽을 보았다.

“아, 네. 사령관님.” 그가 대답했다.

“하퍼가 십오 분 전에 교대했다.” 도리안이 말했다.

스파네티의 눈은 아직도 꿈을 꾸는 양 멍했다. 그는 침을 삼키고는 말했다. “아, 이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도리안은 유물을 보았다. 이 물건에 무언가가 있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가, 별과 별 사이의 광막한 간극을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그 검은 껍데기 안에 있었다.

도리안은 안간힘을 써서 그 물체에서 눈을 뗐다. 그리고 부하에게 말했다. “자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부하가 대답했다. “저는— 이거 문제가 될까요?”

도리안은 몸을 돌려 출입증을 댔다. “아니. 하지만 자네를 의무실로 데리고 갈 거야.”

짐승 분대는 독감 약을 처방받았다. 도리안은 나머지 분대원들도 (전부가 아니라면) 대부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 독감보다 훨씬 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6번 구역의 격리실 어딘가에 갇혀 있는 그 미친 연구원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스파크스 중령은 역시 도리안의 면회 요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도리안은 그런 장애물을 둘러 가는 데 재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범이 필요했다. 내부의 공범이.

자신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지머만 소위를 설득하는 데는 십오 분이 꼬박 걸렸다. 지머만은 6번 구역의 선임 의무관이었기에 도리안보다 보안 등급이 높았다. 그녀는 또한 벤츠 교수(이것이 그 미친 연구원의 이름이었다)의 주치의이기도 했다.

지머만도 환청과 환각 증상을 겪었고, 그 탓에 혼란에 빠져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다. 지머만은 스스로 약물을 처방해 대응했다. 직접 조제한 약물 ‘칵테일’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대신 지머만을 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혼합물을 조금 변형해서 벤츠 교수에게 투약하고 있었다. 지머만의 귀뜸에 따르면 교수의 상태는 ‘극단적’이라고 했다. 질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 없다는 말 외에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원인이 유물과 관련이 있으며, 어쩌면 6번 구역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암흑 지구’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계 생물 실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도리안은 지머만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유물과 관련해서, 지머만은 벤츠 교수가 유물 분석을 주로 담당한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교수에 대한 지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은 이 과제를 맡기 전에는 공격성의 징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나머지 정보와 관련해서는, 식당에서 지머만을 좋아하는 보안 담당자와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 남자의 업무는 6번 구역을 구석구석 감시하는 수많은 카메라의 피드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지머만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암흑 지구에는 카메라 피드가 *전혀* 없다고 했다.

지머만은 자기를 흠모하는 이 남자가 ‘병’에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자도 가벼운 편집증 징후를 보이긴 했다. 그러나 지머만이 보기에 그의 의심이 사실 무근인 것 같지는 않았다. 지머만의 상관들은 그녀를 주시하며 심리 평가를 두 번이나 받게 했다. 업무를 계속하려면 통과해야만 하는 평가인 게 분명했다. 지머만의 연인 지망생도 심리 평가를 받았지만, 두 사람은 이 평가가 6번 구역 근무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고위 장교들이 모두 한쪽 귀에 장치를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머만도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이오닉 차단 장치’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의무관은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리안의 계획에 협력하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끝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위험이 벌을 받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무언가 아주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이제 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데, 지머만도 동의했다.

벤츠의 감방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내부를 직접 향하는 카메라도 없었다. 감방 밖, 격리 지구와 6번 구역의 복도에는 카메라가 있었다. 지머만은 이에 대비해 왓킨스(식당에서 만난 구혼자의 이름이다)에게 보다 철저한 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벤츠의 감방으로 데려갈 거라고 이야기해 두었다. 지머만에 대한 남자의 관심 덕분에 지머만은 왓킨스가 언제 ‘한가한지’ 알았고, 따라서 언제 근무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머만과 도리안은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따라 6번 구역의 격리 지구로 가는 지금, 왓킨스가 둘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걸 둘 다 알았다. 이 구역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본 적은 없었지만, 도리안은 웬지 그 미궁은 갈수록 깊어질 뿐이며 저 앞 어딘가에는 거미줄 복판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시설의 시커먼 심장이 둘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구원들은 대부분 작업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친 소수의 사람들도 지머만과 흰색 실험실 가운을 걸친 동행인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했다. 그럼에도 의무관은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는, 도리안에게 얼른 이 무모한 짓을 해치우고 싶다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긴장했는데도 지머만은 베킨스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다. 지머만은 자신의 특제 약물을 분대에

권했고, 도리안은 스스로 약을 몇 회 분량 먹고 나머지 인원에게도 분배했다. 사령관은 지끈지끈 울리던 두통이 무지근하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가라앉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감방에 도달했고, 지머만이 출입증을 냈다. 문이 열리자 도리안은 걸어 들어가고 의무관은 밖에서 기다렸다.

감방은 삼면이 벽으로 꽉 막혀 있었다. 복도를 면한 관찰용 전면 창이 나머지 벽면의 사분의 삼을 차지했고, 도리안이 방금 들어선 입구가 나머지 면적을 메꾸었다. 창문 맞은편의 벽에서는 침대가 하나 내려와 있었고, 침대 발치의 모퉁이에는 변기가 있었다.

머리 위의 밝은 조명이 하얀 벽에 그려진 일련의 기호를 드러냈다. 처음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도리안이 찬찬히 살필수록 일종의 원시적인 상형문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기호에는 일종의 패턴이, 순서가 있었다. 작은 요소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며 반복되었지만, 도리안에게는 생소한 기호였다. 그나마 알아볼 법한 기호는 하나뿐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크고 벤츠의 침대 위 벽면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다리가 여러 개 달리고 똑바로 선 형태로, 저그 같기도 하고 프로토스 같기도 했다. 이 그림은 나머지 기호와 마찬가지로 짙고 옅은 선홍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벤츠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흰색 점프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도리안이 서 있는 쪽의 반대편 벽에서 침대의 머리맡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사령관의 위치에서는 노인의 등밖에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그 벽에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작품에 세부 요소를 추가하고 있을 터였다.

“벤츠 교수님.” 도리안이 말했다.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으로 보아서는 교수가 오른손을 얼굴에 댄 다음 다시 벽으로 가져간 것 같았다.

“교수님!” 도리안은 숫제 소리를 질렀다.

노인은 사령관이 겨우 보일 만큼만 몸을 돌렸다. 두 볼이 온통 딱지가 앉은 생채기로 울퉁불퉁했다. 크게 뜬 눈은 눈구멍 안으로 폭 꺼져 있었다. 얼굴과 전체적인 몸집은 수척했고, 수염이 자란 턱과 점프슈트의 앞면은 붉게 물든 채였다. 벤츠는 붉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휘휘 돌리더니, 붉은 물감으로 물든 임시변통의 붓을 입에서 꺼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교수의 발치를 내려다보고 이 두 개를 포착한 도리안은, 노인이 피가 고인 잇몸 구멍을 잉크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혐오감과 함께 깨달았다. 지머만이 연구원의 상태가 ‘극단적’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

도리안은 걸어가서 벤츠 옆에 섰다. 그렇게 보니 노인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에 불가해한 요소를 덧붙이고 있었다. 사령관은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교수의 양팔도 얼굴처럼 우툴두툴한 상처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도리안이 말했다. 그는 자기 어깨 너머로 관찰용 창에 선 지머만을 바라보았다. 혹시나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라면 처절하게 실패했다. 두 눈이 복도의 끝과 끝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그림자가—“ 노인이 입을 뗐다.

“길어진다고요. 예, 압니다.” 도리안이 돌아서며 말했다.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누구 그림자 말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그 짓을 억지로 시킨 겁니까?”

벤츠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위쪽 앞니가 빠져 혀짤배기소리를 하고 있었다. 도리안은 노인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바짝 긴장해야 했다. “영원한 자... 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복종하면 상을 받고, 저항하면... 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자라니 그게 누구니까?” 도리안이 바짝 다가서며 재촉했다.

벤츠는 작업을 중단했다. 그는 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더니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그 기묘한 생명체의 형상을 손바닥으로 경건하게 쓰다듬었다.

“그분의 전령이다.”

도리안은 그 어설픈 형상을 뵈히 바라보았다. “저게 그분의 전령이라고요? 영원한 자의 전령이요?”

“나는...복종합니다.” 벤츠가 우상을 향해 말하고 또 말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관찰 창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도리안은 펄쩍 뛰었다. 돌아보자 지머만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한쪽 손을 빙빙 돌리면서 사령관을 재촉하고 있었다. 도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래 있을수록 잡힐 위험도 커진다.

도리안은 뚜벅뚜벅 문간으로 걸어가며, 피로 그려진 신인지 전령인지 뭔지에... 그리고 그 맹목적인 추종자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던졌다.

두 사람이 방을 나올 때, 지머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눈으로는 미친 듯이 사방을 훑었다. 지머만과 도리안이 왔던 길을 별 탈 없이 돌아가 저장실 B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뿅하는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머만의 전화기였다. 의무관과 사령관은 눈길을 교환했다. 지머만은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심호흡을 하고는 주머니에서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누르고 약간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머만입니다.”

도리안에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긴급한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지머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무균실에서 사고가 있었다는군요.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지머만은 주머니 속 전화기가 있던 자리에 떨리는 손을 넣고 급히 사라졌다.

십오 분 후, 도리안이 저장실 B 앞에서 베킨스를 만났을 때 하사는 조금 나아 보였다. 그래도 하사의 증상이 재발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가라, 베크. 내가 교대하지.” 그가 말했다.

하사의 손등에서는 생채기가 아물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깨끗했고 눈빛도 맑았다.

“정말인가요?” 하사가 물었다.

“그래, 좀 쉬어라.”

“실시하겠습니다.” 베크가 이렇게 대답하고 갔다.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시간이 느릿느릿 기어갔다. 복도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다. 도리안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저장실 문간을 흘깃거리며, 유물에 홀린 채 서 있던 스파네티의 모습을 떠올렸다.

문을 보지 않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특히 벤츠와 대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를 나눈 후로는 팀이 더욱 걱정스러웠다. 처음에는 도리안의 두통이 강해졌지만 처음 한 시간 이후로는 통증이 가라앉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졌다. 그는 어느새 문 근처의 벽에 기대 서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머리를 들고 걸어 다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굶떠지는가 싶더니 벽에 기대 서서 즐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감겼다...

그의 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녀이라 할지, 영혼이라 할지, 아무튼 그것이 둥둥 떠 있었다. 마음이 차분하고 만족스럽고, 고통도 전혀 없었다. 공허 그 자체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뿐이었다. 무가 있었고,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초읽기가 시작되었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목소리는 그의 존재 자체와 공명하는 듯했다. “무엇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지?” 그가 물었다.

“영원한 자의 하인이지.”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의 주위, 그 평온한 느낌... 모두 속임수고 개소리라는 걸. “나는 누구도 섬기지 않아.” 도리안이 대답했다.

“너는 복종할 것이다.” 목소리가 돌아왔다. 아까보다 더 강하면서도 어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도리안이 말했다. “네놈이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안 통할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걸. 내가 지켜보고 있거든. 들리나? 우리 팀에서 손 떼. 안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죽일 테다. 명심하라고, 이 외계 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비명 소리는 마치 하얗게 달아오른 칼이 뇌 한가운데를 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리안은 허리를 숙이고 눈을 꼭 감은 채 양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 분이 꼬박 지나서야 소리가 멈추었다. 도리안의 두통이 보복이라도 하듯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저장실 B 앞의 복도에 있으리라 예상하며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저장실 2에 있었다. 유물은 마치 현실에 찍힌 검은 표식처럼, 시공에 난 상처처럼 받침대 위에 떠 있었다. 사령관은 방금 자기가 겉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꼭 스파네티가 그랬던 것처럼 석판 앞에 무감각한 상태로 서 있었겠지.

도리안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문으로 걸어갔다. 방금 겪었던 일을 팀에 이야기하기 전에 지머만에게 무균실의 비상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특제 약물 칵테일도 더 필요했다.

몇 분 후, 도리안은 장교 막사 C에 있는 지머만의 숙소 문 앞에 서서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사령관은 아직 전술 장비를 입고 있었다. 스파크스 중령의 목소리가 헤드셋의 보안 채널에 불쑥 들어왔다. “도리안 사령관. 스파크스다. 지머만 소위를 한 시간째 찾는 중이다.”

자기가 지머만의 방문 앞에서 서 있다는 걸, 중령이 아는 걸까?

“그동안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면 즉시 내게 보고하게.” 스파크스가 송신을 종료했다. 도리안은 전화기를 꺼내 의무관의 번호를 찍었다.

낮지만 확실한 삐리리 소리가 문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지머만은 샤워실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파크스가 한 시간째 찾는 중이라고 했다. 샤워를 하기에는 긴 시간이다.

보안 관계자는 비상시에 모든 병영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코드를 소지하고 있다. 사령관은 최근의 사태를 고려하면 코드를 사용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문 옆의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바로 열렸다.

도리안은 방에 들어섰다. 지머만은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입술은 새파랗고 안색은 유령처럼 하얗다. 입은 벌리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맨다리의 피부는 보랏빛을 띠었다. 왼손은 옆구리에 있었고, 오른손은 매트리스의 가장자리 너머로 늘어져 있었다. 아주 정밀한 절개선이 손목 안쪽을 수직으로 달렸다. 몸 아래의 시트와 금속 바닥의 상당 부분이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령관은 달려가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을 눌러 보았다. 맥박이 없었다. 그는 흥부 압박을 시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팔이 말을 듣지 않을 때까지 몇 분 동안 압박을 실시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녀 스스로 한 것일까?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일까? 스스로 했다면, 왜 그랬을까?

그는 올려다보다가 지머만의 두 손가락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 마치 벤츠 교수처럼...

도리안은 뒤로 돌아 침대 발치 쪽의 벽을 바라보았다.

흰색 벽면에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세 개의 단어가 여러 번 쓰여 있었다.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소위님이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베킨스는 피로에 절어 있었고, 그런 티가 났다. 또 그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사실 (어쩌면 크랜스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팀은 도리안의 방에 모여 있었는데, 침묵과 멍한 시선에서 경악이 그대로 드러났다. 놀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물론 크랜스톤이었다. 그는 그저 주인이 공을 던지기를 기다리는 개처럼, 기대에 차 도리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스파크스는 뭐랍니다?” 베크가 물었다.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도리안이 말했다. 그러고는 눈앞의 충격에 빠진 얼굴들에 대한 대답으로 덧붙였다. “되비우스가 6번 구역의 암흑 지구에 외계 생물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 같다... 그놈이 우리 머리를 휘젓고 있는 거야. 기분을 이상하게 하고, 환각과 환청,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말이지.”

스파네티가 고개를 끄덕였다. 베크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퍼는 시선을 피했다. 크랜스톤은 미소를 지었다. 도리안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놈이 우리가 발견한 유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일종의 증폭기처럼.”

“사령관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파네티가 말했다. “설명이 돼요.”

“내가 지머만 일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도리안이 말을 이었다. “그 외계 생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그랬다면 명령 체계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모른다. 스파크스는 벤츠 교수의 사고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더군...”

“외계 생물이 스파크스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퍼가 말했다.

“전혀 모르겠어.” 도리안이 인정했다. “우리 전 사령관 블랙스턴은 날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어는 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지. 스파크스 이야기를 듣자니 무슨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 모양이야.”

“그러면... 더 위에 보고해야죠.” 하퍼는 굽히지 않았다.

“정식 계통으로 보고한다고?” 베킨스의 말에는 독기가 어려 있었다. “얼마나 걸릴지 알기나 해?”

“그 말이 맞아.” 도리안이 수긍했다. “스파크스는 어찌 건너뛴다 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

“그러게요.” 스파네티가 말참견을 했다. “그러면 그 유물을 빼돌려서 어디로 보내든가 어디 숨기든가 해야...”

“유물은 그대로 둔다.” 도리안이 말했다. “유물을 건드렸다가는 외계 생물이 뭔가 진행 중이라는 걸 눈치챌 테니까.”

“지머만 일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셨죠.” 베킨스가 끼어들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지. 자네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내가 하려는 일은 교범의 모든 규칙에 어긋나고, 잘못하면 군법 회의에 회부되거나 더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거든. 제길, 죽을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나는 그 외계 생물의 흥계를 막고 수많은 목숨을 구하겠지. 나한테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사령관은 팀이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팀이 그만한 위험을 무릅쓰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머만은 너무 노골적인 말로 사람을 곤란하게 하긴 했지만, 모두의 생명을 한 번씩은 구한 적이 있었다. 부대원 전원이 지머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든다고 말하고, 팀에서 그녀를 빼앗은 그 존재에게 복수하겠노라 맹세했다.

그래서 결국은 전원이 함께하게 되었다. 하퍼마저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도리안의 계획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다.

6번 구역에 침투하는 건 쉽지 않을 터였다. 자동 방어 시설이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동 포탑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고한 생명은 어쩔 것인가?

“비살상 탄환을 써라.”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진압 작전에 쓰는 기절탄으로.” 원주민들이 중요 물품을 확보하려는 뫼비우스 군단의 작전에 저항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원주민들이

치명적인 무기를 쓰지 않을 때는 뫼비우스도 비살상무기를 사용했다. 기절탄은 중앙 신경계에 ‘누전’을 일으켜 이십 분에서 사십오 분쯤 대상을 기절시킨다.

전원이 계획을 이해하고 나자, 그들은 모두 지머만의 약을 먹고 무기고에서 적당한 탄환을 챙겼다. 그 후에 또 미리 대비해야 할 보안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카메라였다.

지머만과 왓킨스의 관계(그리고 벤츠 면회) 덕분에 도리안은 그의 근무 일정을 알고 있었다.

왓킨스의 근무 시작 시간 직전이 식당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사령관은 지머만의 방을 나오기 전에 진정제를 챙겼다. 하지만 그는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다.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은 후에는, 스파네티가 식판을 떨어뜨려 소동을 피우고 그 틈을 타 베킨스가 왓킨스의 음료에 약을 타는 건 간단했다.

도리안은 또한 자기가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지머만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또는 흑여 시체가 그 전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머만의 출입증이 없다는 건 아무도 금방 눈치채지 못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사령관은 비상 소개를 실시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주의를 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리안과 팀은 전술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구역에 들어갔다. 무기를 옆에 찬 채 이동하면서, 누군가 물을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하자는 (그리고 동영상 감시 장치가 뻑뻑한 방에 앉은 왓킨스가 즐고 있기를 바라자는) 계획이었다.

지금까지는 순조로웠다.

그들은 외곽의 작업 공간을 지나 격리 지구로 들어가서, 구역의 중심으로 향했다. 아니, 구역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랐다. 도리안은 다른 경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격리 지구의 장점은 인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도리안은 벤츠를 만난 후에 그 이유를 알았다.

격리 지구 안에서, 그들은 줄지어 늘어선 빈 방을 지나 교수가 갇힌 방 쪽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 방에 도착하기 전에, 도리안과 팀은 사람이 있는 방을 하나 발견했다...

방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점프슈트를 여기저기 찢어 베이고 할퀴인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상처 중 일부는 비교적 새것이었고, 일부는 딱지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벤츠처럼 기묘하게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여자가 도리안을 돌아보고 음흉하게 웃자, 납작하게 뭉개진 코와 콧구멍에서 흘러내려 입술 위를 지나 턱에서 똑똑 떨어지는 핏줄기가 보였다.

여자는 몇 초인가 맥없이 바라보더니 코 아래의 핏줄기에 손가락을 대고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돌려 소름 끼치는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수수께끼의 기호를 그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머만이 호출된 이유인 '비상 사태'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어차피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도리안은 이미 팀에게 벤츠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들은 여자의 방을 조용히 지나갔고, 몇 발자국 후에 사령관은 벤츠가 갇힌 방의 관찰 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리송한 기호의 모자이크는 이제 창까지 뒤덮고 있었다. 문 근처인 오른쪽 끝에 기호가 가장 뻑뻑하게 모여 있었고, 덕분에 창이 거의 불투명할 지경이었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날카롭게 뺨기도 하는 선은 왼쪽으로 가며 점점 열려졌다. 사령관이 기묘한 기호 하나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벤츠로 보이는 형체가 유리로 돌진하더니 흠뻑 젖은 손바닥으로 도리안의 얼굴 바로 앞을 탕

내리쳤다. 그는 움찔하고 물러서서, 눈앞의 기괴한 형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교수는 점프슈트는 물론 피부까지 거의 벗어 버린 상태였다. 갈가리 찢긴 노인의 얼굴에서 근육이 드러나 보였다. 코와 두피에 간신히 붙어 있는 몇 가닥을 빼면 표피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한쪽 귀는 아예 없었다.

그는 이가 없는 턱으로 도리안에게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두 단어를 거듭 되뇌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사령관 뒤에서 충격과 공포의 탄식이 들려왔다. 도리안은 물러서서 뒤돌아보고, 손으로 분대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지시했다.

격리 지구를 지나 열기설기한 복도를 따라 더 들어간 팀은, 지머만의 출입증을 사용해 탈의실에 들어섰다. 바닥 반대편에는 기밀식 문이 있었고, 오른쪽 벽을 따라서는 착용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덮는 방호복이 줄을 지어 있었다.

베킨스가 도리안을 미심쩍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더 가기 전에 이걸 입으라는 뜻이겠죠?”

“그래.”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머지 분대원들을 돌아보았다. “자, 방호복을 착용하도록. 하지만 무기를 놓지는 마라.”

팀을 지시를 따랐다. 도리안은 지머만의 출입증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용케 첫 번째 기밀식 문은 물론 두 번째 문까지도 열 수 있었다.

그들이 다음에 들어선 공간은 넓고 탁 트인 무균실이었다. 거대한 환풍기가 이 층 높이의 천장에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도리안이 보기에) 생물유기화학 실험 전용의 작업대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사령관이 알지 못하는 생물(그리고 생물의 일부)도 있었고, 아는 생물도 있었다. 저그의 조직 표본이 시험관과 모니터 옆에 여기저기 걸려 있었는데, 일부는 보호 유리 안의 로봇 팔이 해부하고 있었고 일부는 투명한 액체가 든 대형 수조에 잠겨 있었다. 왼쪽의 벽에는 방 길이의 반을 차지하는 관찰실이 있었는데, 저그가 영양 섭취에 사용하는 살아 있는 유기 양탄자인 점막을 연구하는 공간인 듯했다. 점막이 유리 곳곳을 덮고 있었고, 도리안에게 보이는 관찰실 내부에서는 생체 물질이 벽까지 퍼져 있었고 부드러운 빛이 걸쭉한 점액 사이로 고동치며 공간 전체를 으스스한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이 암흑 지구인가? 도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명의 징후를 보이는 온전한 외계 생물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간의 반대쪽을 살피자 기밀식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연구원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몰두해 있었다. 두 명이 팀을 보고 동작을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리안이 다음 기밀식 문에서 십 미터 앞까지 다가갔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부딪혔다. 남자는 사령관의 왼쪽에 서서, 허리에 손을 대고 방호복의 마스크를 통해 안절부절못하는 연구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스파크스였다. 도리안은 그가 오른쪽 다리의 방호복 위에 무기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광설을 마친 스파크스는 돌아서서 두 발자국쯤 떼나 싶더니 딱 멈춰 서서 도리안과 짐승 분대를 노려보았다. 중령의 시선이 이들이 든 무기로 향했다. 도리안은 왼팔을 들고 손바닥을 펼친 채 스파크스에게 다가섰지만, 스파크스의 손은 이미 권총집에서 총을 빼고 있었다. “무기를 버려라!” 스파크스가 자기 무기를 들며 외쳤다. 도리안이 몸을 날려 중령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스파크스는 오른손을 핵 잡아 빼다가 머리 위의 환풍기에 총알을 한 방 쏘았다.

그 순간 비명이 시작되었다. 사령관은 자기가 방금 들어선 기밀식 문으로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아나는 것을 흐릿하게 인식했다. 그리고는 총성이 이어졌다. 도리안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경보를 울리지 못하도록 자기 팀이 비상장무기를 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령관은 중령과 몸싸움을 하느라 이 모든 상황을 어렵풋하게만 인식했다. 중령은 도리안의 손목을 붙잡고 자기 총을 빼앗으려 애쓰고 있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엇치락뒤치락 힘 싸움을 하며 중령이 아까 서 있던 작업대 쪽으로 다가갔다. 스파크스는 나이에 비해 건장했고 힘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 몇 번은 도리안의 복부를 가격할 심산으로 무릎을 차올리기도 했다. 사령관은 복부를 쑥 집어넣어 피하고는 마침내 힘을 실은 발차기로 중령의 배를 제대로 걷어찼다.

스파크스는 비척이며 뒷걸음질하다가, 저그 공생충처럼 생긴 생물이 든 원통형 수조에 머리를 부딪혔다. 중령은 옆으로 쓰러졌고, 금이 간 유리에서 노란 액체가 중령의 방호복 위로 새어나왔다. 다음 순간 수조가 와장창 깨지면서 나머지 액체와 외계 생물의 시체를 중령에게 쏟아 부었다. 스파크스가 욕지거리를 하며 저그를 떨쳐 낼 때 도리안이 무기를 들어 '기절탄'을 쏘았다. 탄환이 맞자 중령은 신음을 뱉고 몇 초간 꼼짝하지 않다가 축 처졌다.

도리안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무균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밀식 출입구 앞의 탁 트인 공간에 잔뜩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선홍빛이 하얀 옷을 물들이고 타일 위에 흥건히 고여 있었던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일꾼들은 죽어 있었다.

그 복판에 서서 시체들을 내려다보던 팀은, 도리안이 비틀비틀 다가가며 마스크를 벗자 그를 바라보았다.

“어찌다가...?”

“크랜스턴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베크의 대답이었다. “정신을 잃고는 실탄을 쏘기 시작했어요.” 베크는 무기로 쓰러진 사람 하나를 가리켰다. 사령관은 보호 유리를 통해 그것이 크랜스턴임을 알 수 있었다. 수많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녀석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탄창을 갈고 처치해야 했습니다.”

도리안은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지끈거리는 통증이 불거지며 그의 생각을 산산조각으로 흩어 놓았다. 나머지 팀원들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다. “몇 명이 달아났습니다.” 스파테니가 말했다. “쫓아갈까요?”

얼마나 죽은 거지? 도리안은 학살의 현장을 훑어보았다. 크랜스턴을 포함해 시신이 여덟 구다. 이렇게 되어선 안 됐는데...

“사령관님?” 스파테니가 말했다.

드디어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 계속 전진해야 한다.” 도리안은 방호복을 찢고 다음 기밀식 문으로 걸어가면서 옷을 벗었다. 지머만의 출입증을 써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생체 판독 장치가 눈에 들어왔다.

스파테니와 도리안은 아직 기절 상태인 스파크스를 망막 판독 장치로 끌어와, 부축을 하고 눈꺼풀을 벌린 채 기다렸다. 몇 초의 긴장이 흐른 후... 모두 초록색 불빛을 보고 안도했다.

문이 열렸다. 그 문을 통과한 사령관과 팀은 다음 문을 열 때도 그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암흑 지구로 들어섰다.

암흑 지구는 꼭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주위 전체가 검은색의 유광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이 천장과 만나는 선을 따라 맥동하는 파란색 빛이 달리고 있었다. 복도는 양쪽으로 뻗어 있었다. 도리안 앞에는 문이 보이지 않는 반원형의 구조물이 우뚝 서 있었다.

욕지기로 내장이 뒤틀렸다. 머릿속에서는 피 칠갑을 한 연구원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지나갔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경보가 울렸다. 도망친 연구원 중 하나가 침입 사실을 알린 모양이다. 바닥과 벽의 금속판이 열리면서 자동 포탑이 줄이어 나타났다. 도리안 옆에서 스파네티가 무릎을 꿇고 총을 두 발 쏘더니 탄창을 빼고 허벅지에 손을 뻗어 새 탄창을 찾았다. 그는 탄창을 갈고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 시체들. 그렇게 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잘못됐다. 이 모든 게 잘못됐다...

끊임없는 총성이 벽과 복도에 메아리쳤다. 도리안은 마치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자기 왼쪽의 복도에... 지머만이 서 있었다. 지머만이라고?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피부는 창백하고 그 입술처럼 파란 정맥이 도드라져 있었다. 뻗뻗한 자세로 서 있던 그녀는 의외로 부드럽게 핑그르르 돌더니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도리안의 지끈거리는 두통이 한층 심해졌다. 잘못됐어. 전부 잘못됐어.

도리안은 의무관을 따라잡으려고 보조를 끌어올려 뒤를 쫓았다. 더 들어가자 벽이 구부러지기 시작했다. 도리안이 굽이를 돌아, 지머만이 오른편의 회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탄창을 갈아야 했습니다...

사령관은 짧은 복도에 도달했다. 지머만이 그 복도 끝에, 검고 밋밋한 곡면의 벽 앞에서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더니 그 장벽을 *통과했다*.

도리안은 비틀비틀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고동치는 머리로는 온갖 영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무균실 방호복을 입고 바닥을 내려다보던 팀의 모습, 탄창을 빼고 허벅지의 주머니에서 새 탄창을 꺼내 갈아 끼우던 스파네티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진하게 웃던 크랜스턴의 모습...

사령관은 손을 뻗어 딱 막힌 벽면을 만졌다. 뒤에서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서자 하퍼, 베킨스, 스파네티가 모두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도리안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들은 탄창을 바꿀 수 없었어.” 도리안이 입을 열었다. “실탄이 든 탄창은... 전투복 주머니에 있었으니까. 그걸 꺼내려면 방호복을 벗어야 했지.”

“진정하세요, 사령관님.” 베킨스가 말했다. “정신이 흐릿하신가 봐요.” 세 사람은 서로 붙어 서서 출구를 막은 채 그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들은 처음부터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던 거야.” 무기를 든 도리안의 손이 잔뜩 긴장했다.

“그리고 크랜스턴은... 크랜스턴만이 연구원들을 죽이지 않았겠지. 외계 생물도 세뇌 때문에 그 녀석만큼은 조종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스파네티가 말했다. “끝이에요. 다 괜찮을 겁니다.”

도리안이 소총을 들었다. “총을 내려라.” 그가 말했다.

“싸워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퍼가 말했다. “저희도 다 해 봤어요.”

“필요하다면 자네들을 쏠 것이다.” 사령관이 세 사람을 향해 무기를 흔들며 말했다. 걸쭉한 무언가가 미끄러지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도리안의 목 뒤에 가벼운 바람이 스치는가 싶더니 따뜻한 빛이 분대원들의 치열한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나는...”

도리안이 돌아섰다. 두 눈이 저절로 위를 향했다. 외계 생물이 문간에 서 있었다. 생김새는 벤츠가 벽에 그린 그림과 흡사했다. 길쭉한 얼굴과 넓적한 머리 갑각, 막대기 같은 다리와 마디가 있는 등딱지, 거대한 검은 발톱 등, 해부학적 구조가 프로토스와 저그를 반씩 닮아 있었다. 몸을 높고 크게 세우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기묘하고 독특하며 완전한 외계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 눈... 도리안은 그 눈을 보고 유물의 새카만 표면을 떠올렸다. 그 안구 뒤에는 광활하고 무한한 공허가 있었고, 도리안은 그 안으로 빠져 길을 잃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제 심연만이 존재했다. 의식 저 너머로 길어지는 영원한 자의 그림자만이 존재했다. 그 안에 서도록 선택받은 자는 운이 좋은 자다. 영원한 자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외계 생물, 즉 혼종 전령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존재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섬길 것이다.

도리안은 뒤돌아서서 동료들을 마주했다. 그는 혼종의 새카만 안구를 거울에 비춘 듯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복종합니다.”